

장수군, 장수한우 미래비전 창출 워크숍 개최해

저탄소 산업지구 구축·스마트축산 기반 확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추진 방안 모색

장수군은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장수한우 미래비전 창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등급 출현율 하락, 고등 등록우 감소, 비육우 중심 정책의 한계 등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장수한우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관내 한우농가 300여 명과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최한주 군의회위원장,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등 기관사회단체장이 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워크숍은 먼저 김경웅 장수군 축산위생과장이 '장수군 한우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훈 전북도청 축산과 팀장이 '한우산업의 미래비전과 장수군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흥구 건국대교수는 '고능력우 사양관리 및 장수한우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하고 전북대 교수의 '돈버는 저탄소 장수한우', 이티바이오테크 정영길 박사의 '장수형 종모우 개발전략 및 농가보급 계획', 고창군한우협회 김문석 지부장의 '한우경영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현장

의 관심을 모았다.

각 발표를 통해 장수한우 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이 심도 있게 제시되었으며, 참석 농가들은 한우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며 발전 의지를 다졌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한우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저탄소한우 산업지구 구축, 스마트 축산 기반 확산, 우량암소 생산 장려금 지원 등 신규 사업 발굴을 추진 중에 있다"며 "장수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서주 기자

부안군,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 및 산불진화 대응체계 구축 운영

부안군은 가을철 산불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대책 본부를 운영하며 읍·면과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한 조동대응과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부안군은 산불취약지역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0명, 산불감시원 49명을 배치하여 불법소각 및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신청을 통한 산불위험요인 사전 제거 활동에 집중하며, 임차헬기 1대, 산불

진화차량 4대 등 주요 진화 장비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조동 진화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기원 과장은 "가을철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부주의한 소각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영농 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 소각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

한편, 부안군은 부안군청 앞 자연에너지파크 광장에서 '유기동물 입양, 한생명을 살리는 선택!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유기동물 입양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방문객들은 유기동물 입양 절차와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포토존에서 새로운 가족과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는 입양 상담과 함께 입양 시 최대 15만원의 입양비 지원사업을 홍보했으며 입양자에게 반려견 배변 패드, 배변 봉투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를 당부했다.

이영임 기자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탄소국가산단에 투자협약

독자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투자키로 했다.

전주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유)태성이앤씨(대표 이동주)와 1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협약은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과 양선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과장, 유진혁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표 등이 참여해 서면으로 이뤄졌다.

투자 기업인 (유)태성이앤씨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해왔으며, 특히 스마트 창호 시

스템과 태양광 기반 자동 개폐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졌다.

(유)태성이앤씨는 이번 투자를 통해 탄소국가산단에 태양광 창호 개폐기 공장을 신설하는 등 생산설비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 금액은 총 100억 원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12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소재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탄소국가산단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두 차례의 조례개정을 진행하였다. 지난해 2월 투자기

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함과 더불어 올해 6월 탄소국가산단에 분양가의 10%의 입지보조금을 추가 지원하여 투자기업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동주 (유)태성이앤씨 대표는 "물류비 절감과 직주근접이 가능한 교통인프라를 가진 전주 탄소국가산단의 매력적인 입지 조건으로 전주 내 공장 확장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임숙희 국장은 "기업 한 곳 한 곳이 전주의 미래"라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해 꾸준히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한 그릇에 담은 고흥 향기 유자라면 돌아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기간 동안 지역 특산품인 유자를 활용한 특별 시식행사'유자라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유자라면은 고흥유자의 향긋한 매력을 라면에 녹여내며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서울 한강공원 시식행사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 번 먹으면 잊기 힘든 라면'으로 입소문을 타고 돌아왔다.

축제 현장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유

자라면을 맛볼 수 있는 시식 부스가 마련된다. 유자라면은 고흥산 유자엑기스를 넣은 닭고기 육수로 만들어져, 첫 숟가락부터 상큼함이 입안을 감싸고 깊은 국물 맛이 이어진다. 유자 특유의 산뜻함과 라면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기존 라면과는 전혀 다른 '고흥만의 한 그릇'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유자를 활용한 유자김밥과 함께 유자라면을 선보여 방문객들의 오감을 한층 더 풍성하게 자극할 예정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지난해 유

자축제에서 유자라면이 처음 공개됐을 때 큰 관심을 받았고, 서울 한강공원 행사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며 "이번 축제에서도 유자라면을 통해 고흥유자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람향기, 유자천국'을 주제로 열리는 제5회 고흥유자축제에서는 ▲유자청 경매 ▲유자청 담기 체험 ▲유자스와 ▲고흥 9미 음식페스티벌 ▲유자발힐빙시어터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고흥군은 이번 축제를 통해 '맛과 향,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유자축제의 매력을 전국에 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은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농업e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16개 읍·면사무소 농업인원창구에 태블릿 모니터 등 디지털 장비를 설치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블릿 모니터는 담당자 PC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농업인이 종이서류 없이 사업 정보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덕현 기자

내년부터 원전관련 교부세(국비) 받는다

안부 지방교부세위, 방사선비상계획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확정 발표



한빛원전의 위험을 받고 있는 고창군이 보통교부세를 통해 매년 20~30억원의 방사능안전 관련,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고창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이 실현될 경우, 고창군은 내년부터 24억 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원 가량을 받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

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톨도 받지 못했다.

고창의 자존심이 걸린 이번 규정 개선은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앞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도록 든든히 챙겨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 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이 제52회 고창 모양성제 기간(10월29일~11월2일) 반올림피자대표 한동효와 함께 '고창 고구마 피자' 시식행사를 진행하며 축제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식행사는 고창군과 ㈜피자엔컴퍼니(브랜딩 반올림피자)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첫 성과로, 고창 대표 농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메뉴를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다.

반올림피자는 축제 기간 동안 하루 100판씩, 5일간 총 500판의 시식용 고창 고구마 피자를 제공했다.

피자 시식과 함께 '미니언즈' 캐릭터 굿즈 증정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띠었다. 군은 이번 행사가 단발적인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피자엔컴퍼니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상품 발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동효 대표이사는 "고창 우수한 농산물이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영임 기자

중국 자매·우호도시, 섬박람회 참가단 유치

웨이하이 한인회 설명회…리수이·샤오싱 시장 면담



방안을 논의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국제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참가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우리 여수시의 새로운 도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철저

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9월 중국 칭다오를 방문해 섬박람회를 홍보하고 리수이시 주하평 부시장을 초청해 참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해외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덕현 기자

도레이첨단소재, 5000톤 규모 PPS 2호기 증설

새만금의 첫 외투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가 연간 5,000톤 규모의 PPS(폴리페닐렌설파이드) 2호기 생산라인 증설을 완료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산단 2공구 내 도레이첨단소재㈜ 공장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신영대 국회의원, 김익겸 새만금개발청장, 닛카쿠 아키히로 일본 도레이그룹 회장, 큐노 모토히사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김영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는 내열성, 내화학성, 내마모성이 뛰어나 자동차 엔진 부품과 전장부품, 전기전자 제품 부품, 산업기계의 고열 주변 부

품 등 다양한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이번에 준공된 2호기는 저비용·고품질·고성능 PPS 제품을 연간 5,000톤 규모로 양산하는 시설이다. 이로써 새만금의 PPS 총 생산능력은 1만 3,800톤으로 늘어나 글로벌 컴파운드 시장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계적 첨단소재 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는 2013년 새만금산단에 3000억원을 투자하며 첫 진출한 이후 PPS 일관생산체제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번 2호기는 2022년 11월 투자 협약 체결 후 기존 군산공장 부지에 2년간의 공사과 7개월의 시운전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레이첨단소재는 새만금 최초의 외투기업으로서 지난 10여 년간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과 동반 성장 해왔다"라며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이 새만금 산업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있는 만큼, 새만금을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 도레이그룹의 한국법인으로 1999년 설립됐으며, 고기능 필름, 수처리필터, 회로소재 등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를 생산하며, 구미·군산·안성 등 전국 9개 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이상호 기자